

새 정부 5명의 장관 관련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와 후속 조치 기대

| 대상 | 문제점과 의혹 | 의혹의 근거와 대상 |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대학 및 기타 기관의 대응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 |
|--|---|---|---|--|--|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사 퇴자 | 제자 학위논문 심사에 부적절한 장소와 방법 - 제자 이성만의 박사 학위논문 심사에 마담과 아가씨가 나오는 '방석집'에서 학위논문을 단축 심사(5회 => 3회)하고 이들과 같이 새벽까지 뒷풀이 | 제자 이성만의 회고록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owtoday/article/6364988_35752.html (MBC 보도)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한국외국어대 : 박사 학위논문 심사장소의 적절성과 심사의 부실성 및 부정청탁성 접대에 대해 조사(단, 시점은 1999년) | |
| | 본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0년 논문 : '기술혁신정책의 지역네트워크 운용에 관한 연구-인천송도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제자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을 변형해 제자는 저자에서 빼고 본인만 저자로 논문을 게재(예: 박사 표 5-2,5-5 => 학회보 표 1, 박사 표 5-29,5-30,5-31,5-32 => 학회보 표 5, 박사 표 5-12,5-15 등의 일부 => 학회보 표 6) - 박사논문 설문조사 350명 실시 응답자 204명과 학회보 7페이지 응답자 직업이 서로 같고, 설문지 4번 문항은 나열된 순서만 변경되었지 두 논문에서 서로 동일한 문구를 사용 | 설문 응답자 직업의 종류와 응답자 수가 두 논문에서 204명으로 동일해 동시에 설문하면서 조사 항목을 추가(동일 설문을 쪼개기 발표)했거나 같은 설문 결과를 약간 변형해서 유사하게 논문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의심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917_35744.html (MBC 보도)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 한국외국어대 : 박사 학위논문의 부정한 활용 발표에서 제자를 저자에서 빼 부당한 저자표시나 부정한 쪼개기 논문 발표 여부를 조사 | 대학의 조사결과를 관리 감독하고 추적 - 학회보 논문 실적을 근거로 추후에 연구과제 비도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연구부정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 |
| | 아들과 딸의 Sustainability 저널 2020년 논문 http://dx.doi.org/10.3390/su12156089 - 직전 http://dx.doi.org/10.3390/su12041680 에 발표된 유사한 주제에 저자가 아니지만, 이 논문에만 제3/4 저자로 참여해 Fulbright 지원금 수혜자도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어서 학연을 배경으로 긴밀한 사적 네트워크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충돌과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의심 | 교신저자가 Methodology, Data analysis, Review & Editing 등 논문 작성의 대부분을 수행했다고 논문에 적시되었는데, 딸과 아들이 단순히 Writing과 Editing 기여로 저자 자격을 확보할 수 없음(근거: ICMJE 4대 저자자격 권고 - 다른 기여 없이 단독으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연구활동의 예로서... 원고작성 지원, 기술적인 편집,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 중앙대 : 부당한 저자 표시(저자 끼워넣기) 여부를 조사 | 대학의 조사결과를 관리 감독하고 추적 - 대학 교수들의 소속 대학교별로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서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지도해야 함 |
| 아들의 Fintech with AI~ 복텍터 2021년 논문 http://dx.doi.org/10.1007/978-981-33-6137-9_12 - Fulbright 지원금과 이화여대 교수 인맥의 그늘 속에 누나의 동기가 교신저자인 첩터에 아들이 제1저자여서 후보자의 Fulbright 동문회 회장과 이사/감사 역할과 함께 그 후광(후원)이 의심되는 부당한 저자표시 가능성 | 가족 모두(아버지/어머니/누나/아들) Fulbright 장학금/지원금 수혜자인 상태에서 제1저자로 참여하기에는 교과서 참고 수준의 국제 도서여서 쉽지 않을뿐더러 자녀의 연구 경력과 실적면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 이화여대 : 교신저자는 아니지만 관련자 재직학교이고 지도교수로 추정되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저자 끼워넣기) 여부를 조사 | 대학의 조사결과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가 지휘감독을 통해 고위 지도층의 끼리끼리 지원 실태를 보고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 | |
| 이영 중소기업 부장 관 | KSII Transactions 논문 - 박사 학위논문 이전에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2장과 3장이 거의 동일하고, 논문의 핵심인 4장에 앞의 2-3장을 비교하면서 새로 제안하는 화면 캡처 보안 시스템(ASCP) 부분을 너무 간략하게 작성 | 학회지 논문에서 새로 제기하려는 화면 캡처 보안 시스템(ASCP)에 대해서 본문의 10% 정도 분량에 그쳐 논문의 신규성과 완성도가 떨어져 독자를 실망시키는 수준이므로 논문 심사의 적절성을 점검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KSII 학회 : 학술단체로 대학등에 해당되므로 논문 발표 선행 조건을 채워주기 위한 학회 저널측 논문 심사과정의 부실을 조사 | 한국연구재단 : 국내 학회지 등재 심사에 본 조사 결과를 반영 |
| | 박사 학위논문 - 새로 제안하는 ASCP는 핵심적 내용이지만, 본문 26쪽 중 9쪽 분량만으로 간략하게 작성 - 학회지 논문이 학위논문의 선행 조건일지라도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 2-3장에는 인용 없이 결론에만 간략히 인용해서는, 선행 논문과의 차이점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구분해주지 못해서 독자의 오해를 유발 | 선행 논문과 동일한 부분에도 정확하게 인용해 두어야 하지만, 엉뚱하게 결론에만 선행 논문을 인용해서는 KAIST 박사논문 수준과 명성에 미흡하므로 학위논문 심사의 적절성을 점검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 KAIST : 국회의원 예우(박사논문 중단 후 20년 만에 학위 심사) 차원의 박사 학위논문 심사가 아니었는지 심사의 적절성을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AIST의 관리감독 | 학회지 등의 논문 발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국내 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비 및 보급과 더불어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 |

| | | | | | |
|---|--|---|--|---|--|
| | <p>본인의 대한외과학회지 2012년 논문 : http://dx.doi.org/10.4174/jkss.2012.82.5.288 - 선행된 2011년 대한안과학회지 http://dx.doi.org/10.4143/crt.2011.43.3.189 논문과 상당한 부분에서 영문이 동일하거나 약간 변형된 작성이므로 후보자는 교수로 제1저자의 베끼기 수준의 논문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비윤리적 논문을 방치한 책임이 중대</p> | <p>동일한 저자가 참여해 연구 질환이 달라도 (1)초록의 목적과 결론이 너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문제이며, (2)참고문헌 25개 중 12개가 동일해서 내용이 유사할 수는 있어도 본문의 상당량이 이렇게 동일할 수는 없으며, (3)선행 논문을 참고문헌 20번으로 논의(Discussion)에서 간략하게 인용은 했지만 왜 논외의 부분의 내용까지 유사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일반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곳에서 동일할 수 없으므로, 동일 저자가 참여한 선행 논문을 베끼기)</p> <p>https://news.v.daum.net/v/20220501211905020?f=o (KBS 보도)</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3. "표절"은 +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경북대 : 저자의 선행연구라도 새 논문에서는 저자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새롭게 기술하라고 많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서 권유하므로 표절(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or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조사</p> | <p>KBS 보도 등에 제시된 다른 논문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유사(타인의 언어와 한글 복사해 약간씩 변화)함에도 인용이 없어서 표절이 의심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내역을 생략하더라도 관계기관은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p> |
| <p>정호영 보건보 장관 후보사 퇴자</p> | <p>후보자 아들 전자공학회논문지 2016년 논문 1 : http://dx.doi.org/10.5573/ieie.2016.53.4.003 - 중국 유학생 선행 석사 논문의 표 7개와 그림 8개 모두 동일유사해 아들은 저자가 될 자격이 없음(연구의 핵심 데이터인 표.그림.공식.이 동일하면 독자는 하나로 보므로 영문과 한글 기술에서 텍스트 다름과 짜깁기는 부차적인 문제) - 아들에게 저자 자격이 있다고 해도 선행연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표절(부당한 중복게재)과 석사를 저자에서 제외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서 실적으로 제출되어 점수화되면서 경북대학교 (편입학)입시업무 방해 의심 - 석사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2015년 경북대 병원과 84여역원의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해 저자 참여를 암묵적 지원 가능성(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의심</p> | <p>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5758 (JTBC 보도) - 학위논문이 작성된 2015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결과를 전자공학회논문지에서 약간 다르게 한글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 참여시점이 학위논문 제출 이후의 일로 선후관계에 의문 - 근거 PDF :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36페이지,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42, 47, 56페이지, <연구윤리 :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66, 70, 72, 77페이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34페이지</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번역 지원, 편집 지원, 프로그램화 제안, 연구과제 참여 시기와 비율, 연구성과 기여율 등은 저자 자격 구비 시에나 따져볼 일</p> | <p>경북대 : 동일/유사한 표.그림.공식을 후속 논문에 사용하려면, 선행 논문을 정식으로 인용하거나 학위논문에 근거해서 작성된 논문임을 미리 밝혀야 독자 오해 방지가 가능한데 아들이 새로운 실험과 그에 따른 논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저자 자격과 기여를 연구노트로 입증하지 못하면, 연구노트 미작성과 부당한 저자표시(저자 끼워넣기/제거하기)를 조사</p> <p>* 아들 논문 2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가 4월 19일 한국연구재단 => 4월 26일 경북대로 이관</p> | <p>2014년 학위논문으로 수행된 CoAP ~ 논문 중 2015년에는 BK21 Plus 2013년 과제를, 2016년 논문에는 NRF 2016년 + IITP 과제를 표시해 허위 연구성과 보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보고 업무 방해 조사 - 논문 1 : BK21 Plus project(21A20131600011) - 논문 2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R1A2B4010551) + IITP grant funded by the MSIP(R7115160002)</p> |
| | <p>후보자 아들 전자공학회논문지 2016년 논문 2 : http://dx.doi.org/10.5573/ieie.2016.53.8.013 - 선행 박사 논문의 그림 3개와 공식 5개가 모두 동일유사해 아들은 저자가 될 자격이 없음(연구의 핵심 데이터인 표.그림.공식.이 동일하면 독자는 하나로 보므로 영문과 한글 기술에서 텍스트 다름과 짜깁기는 부차적인 문제) - 아들에게 저자 자격이 있다고 해도 선행연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표절(부당한 중복게재)로 경북대의대 편입학에서 실적으로 제출되어 점수화되면서 경북대학교 (편입학)입시업무 방해 의심 -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2015년 경북대 병원과 84여역원의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해 저자 참여를 암묵적 지원 가능성(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의심</p> | <p>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160 (JTBC 보도) - 학위논문이 작성된 2014년 하반기까지의 연구결과를 전자공학회논문지에서 약간 다르게 한글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 참여시점이 학위논문 제출 이후의 일로 선후관계에 의문 - 근거 PDF :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36페이지,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42, 47, 56페이지, <연구윤리 :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66, 70, 72, 77페이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34페이지</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3. "표절"은 +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경북대 : 표절 or 부당한 중복게재를 조사</p> <p>* 아들 논문 2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가 4월 19일 한국연구재단 => 4월 26일 경북대로 이관되어 있으므로 이 건도 병합 처리가 필요</p> | <p>학위논문 출판 후 4건(아들 관련 2건 포함)의 후속 논문 모두 선행 학위논문을 인용하지 않아서 대학/학과/지도교수 차원의 문제인지 정밀한 실태(전수) 조사가 필요</p> |
| | <p>후보자와 무관한 교수팀의 IEEE Conference Paper and Sensors 2015년 논문 2건 : http://dx.doi.org/10.1109/CCNC.2015.71579 http://dx.doi.org/10.3390/s150716060 - 선행 박사학위논문에 기반한 후속 논문에 아들은 저자에 없이 석박사생들만 참여(선행 박사 학위논문은 인용하지 않음은 아들 사례와 동일) - 선행된 박사 학위논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실험의 표.그림.공식이 논문 2건에서 서로 다름에도 실험결과 검증 시뮬레이션 부분의 표.그림.이 동일한 근거가 정당해야 함</p> | <p>동일하거나 유사한 표.그림.공식 등을 후속 논문에 다수 사용하려면, 선행된 학위논문을 정식으로 인용하거나 학위논문에서 근거한 작성된 논문임을 미리 밝혀야만 독자의 오해가 없는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학술활동</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3. "표절"은 +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경북대 : 표절 or 부당한 중복게재를 조사</p> <p>* 아들 논문 2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가 4월 19일 한국연구재단 => 4월 26일 경북대로 이관되어 있으므로 이 건도 병합 처리가 필요</p> | <p>학위논문 출판 후 4건(아들 관련 2건 포함)의 후속 논문 모두 선행 학위논문을 인용하지 않아서 대학/학과/지도교수 차원의 문제인지 정밀한 실태(전수) 조사가 필요</p> |

| | | | | | |
|---------------------------|--|--|---|---|--|
| <p>한동훈 법무부 장관</p> | <p>자녀 논문 리스트 1번 철희 A Han(2021). Does national debt ~. <i>ABC Research Alert</i>, 9(3):100-103. https://doi.org/10.18034/abcra.v9i3.582 2번 철희 A Han(2021). Sherman Act 1890 ~. <i>ABC Research Alert</i>, 9(3):104-108. https://doi.org/10.18034/abcra.v9i3.583 3번 A Han(2021). An analysis of COVID-19 ~. <i>ABC Research Alert</i>, 9(3):127-130. https://abc.us.org/ojs/index.php/abcra/article/view/585/1091 4번 A E Han(2021). Education and healthcare ~. <i>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 (AJHAL)</i>, 8(1):85-94 https://i-proclaim.my/journals/index.php/ajha1/article/view/613/567 5번 철희? A Han(2021). Pandemic's impact ~. <i>Global Scientific Journals</i>, 9(12):1804-1814. https://www.globalscientificjournal.com/researchpaper/Pandemic_s_Impact_on_Social_Inequalities_Pakistan_case.pdf 6번 철희? M Choi...AE Han(2021). Industry 4.0 ~. <i>Asia Pacific Journal of Energy and Environment (APJEE)</i>, 8(1):7-16. https://i-proclaim.my/journals/index.php/apjee/article/view/593</p> | <p>1번 : 첨삭지도 받은 연습용 글이지만, 케냐 대필작가 Benson이 보낸 사진(한겨레 보도)으로 ABC Research Alert는 23일 만에 출판되면서 논문의 작성/투고/심사/출판이 단기간에 완료되는 부실저널로 수록 논문도 부실해서 에세이 수준으로 대필:첨삭 논쟁 중에 대필 의심</p> <p>1-3번은 습작이나 아카이브 보존용이라기 보다는 하버드대학교 공모전 주제와 일치해서 미국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 의심 받는 상황(한겨레 보도)</p> <p>1-6번은 편집팀 1명이 평가해 논문형식 구비한 OA 저널로 포장되었지만, SCIE, Scopus, PubMed 등에 모두 미등재로 Cabell's Blacklist 등재(연구재단 + KISTI)로 모두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이어서 논문 발표의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난 비윤리적 행위로 언론 보도</p> <p>6번 : 친인척 Madeline Choi(Monta Vista High School)도 공동 저자(뉴스타파 보도)로 Copyleaks 일치율 54.5%로 다른 자료를 표절한 것으로 의심</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①의 3. "표절" or 대필에 준해서 처리(고등학교는 연구윤리 검증 미제도와)</p>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①의 3. "표절" or 대필에 준해서 처리(고등학교는 연구윤리 검증 미제도와)</p> | <p>인천광역시교육청 : 외국교육기관의 감독은 교육청 감사관(032-420-8160) 등이 담당하므로 실태 조사가 필요</p> <p>※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에 부실한 논문을 굳이 유료로 출판비(Article Processing Charge)를 지불하면서 출판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 대학 입시용 스펙(Ivy개슬) 준비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한겨레, 한국일보, 뉴스타파 등) 보고 경찰이 수사 중으로 언론 보도</p> | <p>미성년 저자 논문 실태의 전수조사 결과에 관해 누락된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과 학회발표나 대학의 부실 검증을 등을 재검토와 재검증을 교육부와 함께 공동 실행 시해 논문 철회나 수정 여부 추적하기, 대상 논문 및 징계 논문을 구분해 리스트를 공개해 일별백계</p> |
| | <p>7번 AE Han(2021). Machine learning in healthcare ~. IEEE의 ICISAT Conference(27-28 Dec. 2021 Tebessa) DOI: 10.1109/ICISAT54145.2021.9678403 8번 MS Keya, A Han(2022). A performance analysis of depression ~. IEEE의 ICAIS Conference(23-25 Feb. 2022 Coimbatore) DOI: 10.1109/ICAIS53314.2022.9742757</p> | <p>7번 : Copyleaks 일치율 55.5% 로 학생 에세이 거래 UKessays.com 약간 수정해서 표절 or 외부인과 작성임에도 공저자 누락해 부당한 저자표시 의심(뉴스타파, 시사인 보도)</p> <p>8번 : 제1저자 Keya는 온라인 과외선생/연구원/프리랜서/대필사업가(MBC 보도)로 부당한 저자표시(저자 끼워넣기) 의심</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 위) ①의 3. "표절" or 4. 부당한 저자 표시에 준해서 처리(고등학교는 연구윤리 검증 미제도와)</p> | <p>IEEE : ICISAT와 ICAIS에 대필과 표절 확인을 요청할 필요</p> | |
| | <p>자녀 도서 리스트(Amazone 판매) 전자책 <i>Mathematics Workbook</i> 1번 Geometry ~ 2번 Precalculus ~ 3번 Math problems ~ 전자책 <i>Let's Talk About Science</i> 4번 Cell Cycle and Mitosis 5번 Good Fat, Bad Fat e매거진 <i>Pandemic Times Magazine</i> 6번 매거진 3호 7번 매거진 6호 8번 매거진 7호 9번 매거진 8호 10번 Earth has coronavirus: Environment book for kids? 11번 기타 추가?</p> | <p>아마존의 전자책 10여권은 자원봉사, 강의 안, 판매액 기부 목적 등이라고 반박하지만, Analyzemath.com의 문제 전부와 Varsity tutors의 30 문제나 표절해 타인 저작물의 표절에 따른 저작권 위반과 표절한 자료를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유료 판매(뉴스타파 보도)</p> | <p>저작권법 위반 상태였다는 의심 : 청문회 과정에서 원저자 2명에게서 저작권 동의를 받았음을 해명했지만, 문 제 제기 이후에 저작권을 확보해 그 시점까지는 의혹 상태였음</p> | <p>인천광역시교육청 : 외국교육기관의 감독은 교육청 감사관(032-420-8160) 등이 담당하므로 실태 조사가 필요</p> | |
| | <p>자녀 수상 및 대외 활동 SW 대회 전문가 코딩으로 수상(MBC 보도) 유료로 봉사활동 등의 홍보성 인터뷰 각종 경진대회 수상</p> | <p>미국외무부 협회 전미 고교 에세이 경진대회, 기후정의 관련 영국 TSL 에세이 경진대회, 다탘머스 대학 Modern MD 에세이 경진대회 등 미국 대학 입시 스펙으로 의심</p> | <p>경진대회 업무 방해 가능성 : SW 대회의 제작에 전문가 코딩 외부 조력에 의한 수상은 업무 방해 의심</p> | | |

친인척 논문 리스트 : Madeline (Myung Suh) Choi
 1번 Myung Suh Choi, Seung Ah Choi, J. Ryu, Y. Choi(2021). Study of the Role and Impact of SNS ~. *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 (AJHAL), 8(1):19-32. <https://doi.org/10.18034/ajhal.v8i1.543>
 - Article Retracted: 17 May 2022
 - Copyleaks 일치율 : 46.2%(Daily Pennsylvanian)
 2번 Myung Suh Choi(2021). The Differences in Oral Health ~. *Dentistry*, 11(10):417. <https://www.walshmedicalmedia.com/open-access/the-differences-in-oral-health-related-quality-of-life-among-socioeconomic-groups-in-california-usa.pdf>
 - Article 현재 : 사라져 찾을 수 없음
 - Copyleaks 일치율 : 78.2%(Daily Pennsylvanian)
 3번 Myung Suh Choi, I. Chon, K. Lee, K. Kang, J. Kim, E. Bae (2021?). Autism Spectrum Disorder Behavioral Implications ~. *Engineering International*, 9(1):. <https://doi.org/10.18034/ei.v9i1.527>
 - Article Retracted, 11 May 2022
 - Copyleaks 일치율 : 75.0%(Daily Pennsylvanian)
 4번 Myung Suh Choi, Y. Choi, K. Kang, K. Lee, J. Ryu, N. Yu, S. Yoon(2021). Screen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Hate Crimes ~. *ABC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10:31-38. <https://doi.org/10.18034/abcjar.v10i1.556>
 - Retracted, 11 May 2022
 - Copyleaks 일치율 : 52.4%(Daily Pennsylvanian)
 5번 Madeline Choi, L. Jun, I. Chon, Y. Choi(2021). Analysis of Technology for Autistic Children ~. *Malaysian Journal of Medical and Biological Research* (MJMBR), 8(2):69-76. <https://doi.org/10.18034/mjmb.r.v8i2.597>
 - Retracted and Removed(타 논문으로 대체 수록)
 - Copyleaks 일치율 : 59.9%(Daily Pennsylvanian)
 6번 Myung Suh Choi(2021 미출판 Preprint?). Modeling ADHD in Drosophila ~. <https://arxiv.org/ftp/arxiv/papers/2104/2104.01469.pdf>
 - Copyleaks 일치율 : %
 7번 A. A. A. Ahmed, A. Aljabouh, P. K. Donepudi, Myung Suh Choi(2021 미출판 Preprint?). Detecting Fake News Using Machine Learning ~. <https://arxiv.org/ftp/arxiv/papers/2102/2102.04458.pdf>
 - Copyleaks 일치율 : %
 8번 T. Fadziso, Myung Suh Choi(2020). Use of AI and Machine Learning ~. *Malaysian Journal of Medical and Biological Research* (MJMBR), 8(1):7-12. <https://doi.org/10.18034/mjmb.r.v7i2.517>

1번 논문이 표절한 이상원 뉴멕시코주립대 교수는 "(평균, 표준편차 등)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데 통계치가 똑같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 마구잡이로 내가 쓴 변인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막상 가설들은 테스트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학생들이 단순히 문장만 '표절(plagiarism)'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학계에서 이런 식의 표절이나 조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678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3번: Myung Suh Choi(Monta Vista High School) Cabell's Blacklist + Copyleaks 일치율 76.0% + 저자가 고교생들로 IRB 여부가 불분명 (<https://newstapa.org/article/fp5qN>)

3번 논문 철회 이유 : It was recently brought to our attention that the work that was published in this journal had a significant part that was used from a previously published study without providing the appropriate citation, and even taking the sentences verbatim wholly, which constitutes documented fraud and copyright infringement.

※ 더 자세한 내용은 후보자 딸과 친인척 논문 등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객관적 정리된 위키 사이트를 참조
<https://namu.wiki/w/%ED%95%9C%EB%8F%99%ED%9B%88%20%EC%9E%90%EB%85%80%20%EC%9E%85%EC%8B%9C%EC%8A%A4%ED%8E%99%20%EB%85%BC%EB%9E%80>

Pennsylvania 대학 : 외국이라서 미주 교포들이 입학(예정) 대학교에 Copyleaks 일치율 등을 근거로 청원 중으로 학교 신문에서 보도되면서 학교의 연구윤리 문제 조사를 촉구

<디피=The Daily Pennsylvanian, 이하 디피, 1885년 창간한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신문>는 청원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을 온라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링크스를 사용해 분석하고 "해당 논문들이 이전에 발표된 연구와 유사성을 공유하며 표절률이 청원에 나온 숫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디피>가 기사에서 공개한 표절률은 최저 46.2%에서 최대 78.2%까지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661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 | | | | |
|---------------------------------|--|---|---|---|--|
| | <p>https://i-proclaim.my/journals/index.php/mj-mbr/article/view/517/4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현재 : 사라져 찾을 수 없음 - Copyleaks 일치율 : %, 투고 중인 다른 논문과 유사한 방법론 적용 <p>9번 에러 Madeline Choi, I. Chon, K. Kang, L. Jun, Alex Eugene Han(2021). Industry 4.0 ~. <i>Asia Pacific Journal of Energy and Environment</i> (APJEE), 8(1):7-16. https://i-proclaim.my/journals/index.php/apje/article/view/5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tracted and Removed(타 논문으로 대치 수록) - Due to the author's privacy reasons, a decision has been taken for the article's retraction and removal. ※ 법무장관 딸과 작성 - Copyleaks 일치율 : 약 62% | | | | |
| | <p>친인척 논문 리스트 : Annabelle (Seung Ah) Choi</p> <p>11번 Myung Suh Choi, Seung Ah Choi, J. Ryu, Y. Choi(2021). Study of the Role and Impact of SNS ~. <i>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i> (AJHAL), 8(1):19-32. https://doi.org/10.18034/ajhal.v8i1.5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Retracted: 17 May 2022 - Copyleaks 일치율 : 46.2%(Daily Pennsylvanian) <p>12번 Seung Ah Choi & Soonmin Lee(2019). Encapsulation of <i>Streptococcus salivarius</i> ~. <i>Biomedic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i>, 19(2):14193-14197. https://biomedres.us/pdfs/BJSTR.MS.ID.003271.pdf</p> <p>13번 Seung Ah Choi(2020 미출판 Preprint?). Designing an Algorithm that Detects Fake Amazon Reviews. https://arxiv.org/ftp/arxiv/papers/2009/2009.09102.pdf</p> <p>14번 Seung Ah Choi(2020 미출판 Preprint?). Designing a Novel Method for Personalizing ~ https://arxiv.org/ftp/arxiv/papers/2007/2007.11134.pdf</p> | <p>11번은 친인척의 동생(Monta Vista High School)과 공동</p> <p>12번: Seung Ah Choi(Monta Vista High School)가 친인척 교수와 제1저자 논문이지만,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교수의 실적 리스트에는 누락되고 해당 고교생은 대학 진학으로 보도</p> <p>※ 청문회 후에는 언론에서 '이모' 논문으로 회자</p> | <p>12번은 대학 교수까지 참여한 부실저널(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으로 의심을 조사할 필요성</p> | <p>Pennsylvania 대학 : 외국이라서 미주 교포들이 입학(예정) 대학교에 Copyleaks 일치율 등을 근거로 청원 중으로 학교 신문에서 보도되면서 학교의 연구윤리 문제 조사를 촉구</p> <p>12번 논문 연세대 : 연세대 재직 교수가 교신저자여서 연세대에 연구윤리 검증 책임</p> | |
| <p>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p> | <p>학회 발표 후 대학교(연구소) 저널과 학회 저널에 유사한 논문을 중복해서 출처표시나 미인용으로 게재해 부당한 중복게재 의혹</p> <p>2)번과 3)번은 본문, 결론, 참고문헌 부분에 각 1건 외에 98% 정도가 동일하지만, 선행발표와 출처를 미인용(언론보도: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이고 5문장만 빼면 같은 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구조까지 일치하지만, 출처표시가 전혀 없음) ※ 2)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으로 3)번에는 송실대학교로 소속기관을 표시해 이직 전후에 발표와 게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순애. 2000.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pp. ?. 2) 박순애. 2000.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 참여 :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따른 전략적 접근. 연세사회과학연구. 6(1):1-28. 3) 박순애. 2001.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참여 :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따른 전략적 접근. 도시행정학보, 14(2):67-92.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송실대 : 선행연구의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논문을 게재해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p> | <p>학회 발표 후 학술지(저널)에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에 발표 사실을 적시하는 표준적 방법과 문구에 대해 국내 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및 보급과 더불어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p> |

| | | | | | |
|------------------------------|---|---|---|--|--|
| | <p>4명이 공동연구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학회 발표 후 2건의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면서,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 or 논문 쪼개기)와 부당한 저자표시(일명 저자 빼기) 의혹</p> <p>3)번 논문은 1)번 보고서의 제2장 제3절, 제3장의 일부, 제4장 제2절, 제5장, 제6장의 제1절 등을 주로 제외한 상태로 보고서를 요약한 논문이며, 3)번에는 송실대학교로 소속기관을 표시한 후 연구보고서의 공동연구자 3명을 감사 글에 언급하면서 저자에서 모두 제외해 부당한 저자표시 의혹도</p> <p>※ 1)번의 표3-7과 3-9가 3)번의 표1로 통합, 1)번의 표4-3이 3)번의 표2로, 표4-6이 표3으로, 표4-7이 표4로, 표4-8이 표5로, 표4-9가 표6으로, 표4-10이 표7로, 표4-11이 표8로, 표4-22가 표9로, 표4-23이 표10으로, 표4-24가 표11로, 표4-25가 표12로, 표4-26이 표13으로, 표4-27이 표14로, 표4-28이 표15로 거의 유사하게 재할용</p> <p>4)번은 위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요약(예: 163페이지는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것)한 논문으로 3)번과 4)번에서 그림1과 표1은 서로 동일(보고서와도 동일)</p> <p>※ 1)번의 그림5-2가 4)번에서 그림3으로, 표5-1이 표2로, 표5-2가 표3으로, 표5-3이 표4로, 표5-4가 표5로, 표5-5가 표6으로, 표5-7이 표7로, 표5-8이 표8로, 표5-9가 표9로, 표5-10이 표10으로, 표5-11이 표11로 거의 유사하게 재할용</p> | <p>1) 이G, 박순애. (+ 이SH, 윤HJ). 2001.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174.</p> <p>2) 박순애. 2002. 제목 미확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2:165-198.</p> <p>※ 이 부분만 KISS에서 현재 삭제로 추정</p> <p>3) 박순애. 2002.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1(4):37-67.</p> <p>*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에 자문과 도움을 주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G 박사님, 윤HJ, 이SH 연구원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4) 박순애. 2002. 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4):159-190.</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서울대 : 선행연구의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논문을 게재해 부당한 저자표시(저자 빼기)와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 or 논문 쪼개기) 여부를 조사</p> | <p>학회 발표 후 학술지(저널)에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에 발표 사실을 적시하는 표준적 방법과 문구에 대해 국내 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비 및 보급과 더불어 상세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p> |
| <p>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p> | <p>대학교(연구소) 저널에서 학회 저널로 매체만 변경되었을 뿐 작성 연도가 1년이 지나면서 표와 그림의 데이터와 참고문헌에 최근 연도가 일부 추가되어 현행화되면서 숫자는 약간씩 변화되었지만, 논문의 구조와 텍스트는 거의 동일해 교신저자의 역할이 새로 추가될만한 변화가 없으므로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와 부당한 저자표시(저자 끼워넣기) 의혹</p> <p>2)번 논문의 표1-10과 그림1-5도 연도 차에 따라 1)번의 데이터를 현행화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 숫자가 다를 뿐 표와 그림의 구조는 동일해서 새로 교신저자가 추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p> | <p>1) 조YS, 조YD. 2005.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생명자원연구, 13:137-148.</p> <p>2) 조YS, 조YD, 박순애(교신저자). 2006.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환경정책, 14(1):215-236.</p> <p>※ 1)번에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 부분만 삭제되었을 뿐 거의 동일해 두 논문 간 표절률이 36%라는 비판에 제1저자가 대학교 저널의 철회를 추진한다고 보도되었지만, 교신저자는 이름만 엮은 꼴</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서울대 : 선행연구의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논문을 게재해 부당한 저자표시(저자 끼워넣기)와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 여부를 조사</p> | |
| | <p>탐색적 연구여서 텍스트 일치율이 높을 수 있고 새 내용 많아 문제없을 수도 있지만, 발표한 학회와 게재한 저널이 다를 경우에 학회 발표 사실을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 의혹</p> <p>※ 소재목이 같고 내용도 유사해 결론처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라고 부정적으로 보도되었지만, 학회 발표 후 저널 게재를 추진하면서 내용을 더 보강하는 것은 당연한 일</p> <p>※ 1)번과 약간만 다른 자료도 별도로 발견</p> | <p>1) 박순애. 2007.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발표 논문집. pp. ?.</p> <p>2) 박순애. 2007.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사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4):135-165.</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서울대 : 선행연구의 출처 표시나 미인용으로 논문을 게재해 부당한 중복게재(일명 자기표절) 여부를 조사</p> | |
| | <p>선행연구나 발표 사실을 후행 논문에서 밝히지 않아 출처 표시나 미인용하면, 독자를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로 부당한 중복게재가 되므로 후보자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움(위 4건 모두 학회/보고서/대학저널 발표 후 학회지에 다시 정식 논문을 게재한 통상적 사례로 1999년 한국행정학회 논문기고요령에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만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용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언론보도)</p> | <p>논문 재탕 4탕·꼼수 '실적'으로 교수 임용? ※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보도에 포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925_35744.html ※ 선행 발표 후 학회지에 다시 정식 논문을 게재할 때 선행 발표를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아서 문제인 사례로 과거에 빈번</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의 5. "부당한 중복게재"는</p> | <p>1) 정부의 공식적 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니 문제가 없다지만, 후행 논문과 저서에서 인용은 국제관례로 연구윤리를 주관하는 교육부 수장의 해명으로는 부적절</p> <p>2) 중복게재가 아니라지만, 일기도 상당히 높아서 중복게재에 준하는 반복성 행위</p> <p>3) 부당한 이득이 없었다지만, 송실대에서 서울대로 이직 시점의 연구실적이 중요한 시기로 당시에 송실대는 학술활동지원비 지급 규정이 있어서 논문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울대에서도 부교수 승진 등에 실적이 중요한 시기로 의심</p> <p>4) 교육 관련 논문 0건인 행정 전문가에 불과해 교육 관련 경력과 뚜렷한 연구 결과물도 없어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지만, 인정 가능한 논문 1건 발견</p> | |